"저도 고양시민이랍니다"

가수 이범학 인생 2막 이야기

"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~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맘은~♬"

1991년 <이별 아닌 이별>이란 노래로 혜성처럼 등장, 훤칠한 외모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심을 사로잡으며 돌풍을 일으킨 가수 이범학. 하지만 이후 이범학의 모습을 TV에서 자주 볼 수 없어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다.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. 백마 화사랑을 방문한 이범학 님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다.

글·사진 방재현(고양소식 편집위원)

방재현(이하 방) : 안녕하세요? 고양소식지에서 나왔습니다. 가수 이범학 씨 맞으시죠?

이범학(이하 이) : 네, 안녕하세요? 이범학입니다.

방 : 지금 카메라 들고 혼자 멘트하던데, 무슨 촬영인가요?

이 : 고양시 유튜브 방송에서 브이로그를 찍자고 해서요. 고양시민들께 제 일상을 보여드리는 중입니다.

방 :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멘트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던데요. 역시 방송을 많이 해봐서 그런가 봅니다. 촬영장소를 백마화사랑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

이 : 백마 화사랑은 저희 시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거든요. 저도 대학생 때 가끔 여기 와서 파전에 막걸리 먹고 차도 마시고 했던 추억이 있는데, 고양시가 화사랑을 복원했단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와봤습니다. 여기 LP판 중에 마침 제 음반도 있어서 흡족하네요.

방 : 이범학 씨 하면 <이별 아닌 이별>이란 노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. 당시 인기가 엄청났죠?

이 : 어느 날 눈 떠보니 '벼락스타'가 돼 있었어요. TV와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제 노래가 흘러나오고, 음반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. 결국 KBS 가요톱텐 5주 연속 1위를 거머쥐었죠. 당시만 해도 가수들이 비주얼보다 가창력으로 승부하던 때였는데, 제가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스타일이었나 봐요. 노래와 외모 둘 다 되는 가수라고 추켜세우며 많이들 사랑해주셨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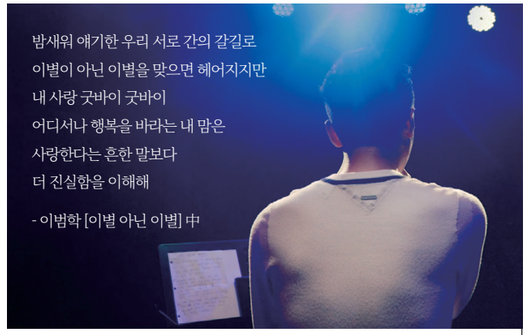
방 : 그렇게 인기 많은 스타였는데, 1집 <이별 아닌 이별>, 2집 <마음의 거리> 이후 TV에서 자주 볼 수 없었어요.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?

이 : 당시 소속사와의 부당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동안 공백이라 할 만한 시간이 있었어요.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섭외 요청은 들어왔는데, 완성도 높은 앨범을 들고 복귀하고픈 마음에 쉽게 응하지 못했고요. 대신 DJ·뮤지컬·연극·음악감독·배우 등으로 영역을 넓히다 보니 TV로 인사드릴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.

방 : 이범학 씨 하면 발라드 가수 이미지인데, 트로트 앨범도 낸 적이 있네요?

이 : 바이브 윤민수 씨가 트로트 곡 <이대팔>을 만들어 줬어요. 나이를 먹으니 트로트가 좋아지기도 하고 이미지 변신 차원에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2012년 발표했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 「미스터 트롯」에서 김호중 군이 이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어요. <이별 아닌 이별>도 FT아일랜드, SG워너비 같은 쟁쟁한 후배들이 리메이크해줘서 젊은 세대들도 제 노래를 알더군요.

1991년도 '이별 아닌 이별'을 부르는 이범학(출처: KBS 토요대행진)



방 : 가수 활동과 병행해서 음식점도 운영한다고요? 직접 서빙도 하고 친절하게 손님 응대하는 이범학 씨를 목격한 분들이 많아요.

이 : 일산 대화동 가로수길에서 해물요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. 제 아내가 원래 공연 기획자였는데, 기획자든 가수든 비수기를 견디기 위해선 고정수입 창출이 필요했어요. 그래서 어떤 부업을 할까 고민하다 요리 잘하는 아내를 믿고 음식점을 열었습니다. 처음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창업한 지 벌써 8년이나 지났네요.

방 : 현재 고양시에 살고 있죠? 원래 서울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민이 되었나요?

이 : 고양시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아내가 이곳에 정착하길 바랐어요. 아내 의견을 존중해 고양시에 집도 얻고 음식점도 내게 됐네요.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, 여러모로 살기 좋고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.

방 :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. 어떠세요?

이 : 저도 어려움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어요. 코로나19 이후 손님도 줄고 관리비 내는 것조차 버거워 장사를 계속할까 접을까 매일 매일 갈등합니다. 저처럼 고민하는 소상공 사장님들이 많을 텐데, 다 같이 힘내서 이겨내자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.

방 : 끝으로, 최근 근황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들려주세요.

이 : 음식점 운영도 하고 신곡 준비도 하면서 분주히 지내고 있어요. 요즘은 TV보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인 것 같아 유튜브 채널 <이범학TV>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5인조 밴드 '동네사람들'과 라이브 쇼를 기획했는데, 좋은 노래도 들려 드리고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 팬 여러분과 소통할 생각입니다. TV를 통해서도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양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.